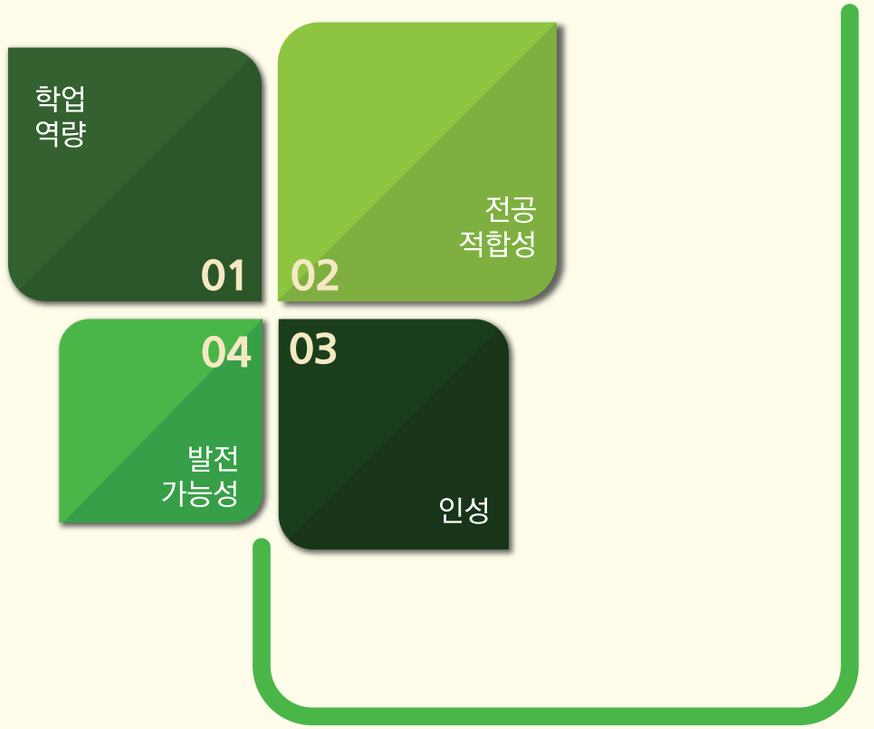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건국대 · 경희대 · 서울여대 · 연세대 · 중앙대 · 한국외대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1. 인용하실 때는 꼭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교육업체의 무단사용을 절대 금합니다.

Greetings

인사말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으로 대학의 전형은 많이 단순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며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6개 대학 공동연구진에서는
2016년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표준화 하였습니다.

대학에서 평가요소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되고,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전형을 운영하면서 바쁜 중에도 연구를 진행해주신
6개 대학 공동연구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대학의 노력이 모여 대입전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8. 2.

건국대학교 연구책임자 정고식

책자 활용 시 **유의사항**

이 책자는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6개 대학-건국대·경희대·서울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의 공동연구 「대입전형 표준화방안 연구」(2018)를 통하여 제시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 중 주요내용만을 간추려 편집한 것입니다. 연구보고서와 본 책자의 내용 중 상이한 부분은 보고서 출간 이후 연구진의 의견을 수정·보완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본 책자의 구성은 6개 대학 공통 평가기준안에 포함된 평가요소인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순서로 기술되었습니다. 각각의 평가요소의 설정배경이나 개념정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개별 평가항목의 세부평가내용 및 이러한 세부평가내용이 실제 평가장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각 평가요소의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을 표로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자에 제시된 내용은 6개 대학의 정책연구 결과이므로, 이 공통 평가기준이 6개 대학, 혹은 이 공통안을 차용하고 있는 타 대학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안은 아니며, 실제 평가 활용과정에서 대학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대학의 실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대학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본 책자의 구성은 6개 대학 공통 평가기준안에 포함된 평가요소인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순서로 기술되었습니다."



하나의 평가요소는 세부 평가항목과 세부평가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세부 평가항목을 개별적으로 정량평가 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나타난 개개의 활동이나 사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세부평가내용에 따라 평가합니다. 하나의 활동이 여러 평가항목에 적용될 수도 있으며, 세부평가내용이 모두 우수해야 그 해당 평가항목이 높게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책자에 제시된 구체적 사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므로 일반화하여 이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본 책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적·종합적 평가에 대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집필되었으나,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특성 상 제시된 평가내용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해당내용을 모방하거나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평가에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인사말 03

책자 활용 시 유의사항 04

들어가며 08

학업역량 10

전공적합성 20

인성 34

발전가능성 46

자기소개서 자율문항 54

나가며 56

참고문헌 60

들어가며...

2013년 8월 교육부에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학은 대입전형을 대폭 간소화하고 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해오고 있다.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의 핵심은 대입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입전형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위주로 정시는 수능, 실기위주로 대입전형 체계를 마련하였다.

2016년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공동으로 대입전형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공통기준과 용어표준화 연구'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 명칭을 '학생부종합전형(해당 대학 명칭)'으로 표준화하였고,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의 전형요소를 4가지(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로 통일하고 명칭도 동일하게 사용하기로 하였다.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다양하지만 일정 범위로 한정하여 용어를 제시하되, 6개 대학별 인재상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기소개서 자율문항을 공통으로 제시하여 2018학년도 전형까지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공동연구에서 제안한 **서류평가의 4가지 평가요소를 명확하게 재정의하고, 평가요소별 평가항목을 유목화하고 평가세부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기소개서 자율문항도 **지원자의 가정환경 등 개인정보가 나타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율문항의 문구도 수정**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진 2016년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와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을 재구성하고 이를 고교와 대학 전문가 총 28명에게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자문은 지역, 고교유형, 대학설립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학입학관계자 10명, 고교 진학관련 교사 21명을 선정하였으나, 회수된 내용은 대학관계자 9명과 고교 교사 19명으로 총 28명의 자문이었다. 자문내용을 정리하여 자문에 성실히 임하거나 자문의 내용 중 논의 내용이 있는 총 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1차 전문가 자문은 연구진의 의견에 관한 전반적 자문이었으며, 2차로 진행된 FGI(Focus Group Interview)는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용 선정과 평가내용이 실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길러지는 역량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고교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의 표준안은 각 장에서 4가지 평가요소별로 제시된다. 평가요소의 배경과 정의, 평가항목의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학업 역량 1



본 연구는 2016년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학업역량'의 평가요소와 세부 평가항목을 재점검하고 논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2016년 연구에서는 '학업역량'을 '대학 입학 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업성취도 및 지적 성취, 학업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대한 것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학업역량'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탐구능력'으로 구분하였다.

> "**'학업역량'** 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역량의 개념을 고교 수준 내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학업역량을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성적과 관련된 부분은 학업성취도에서, 나머지는 태도와 탐구능력으로 논의를 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학업역량의 평가항목을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으로 변경하였다.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자기주도성, 지적 호기심 등의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탐구능력도 일정 부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와 관련성은 있지만 탐구활동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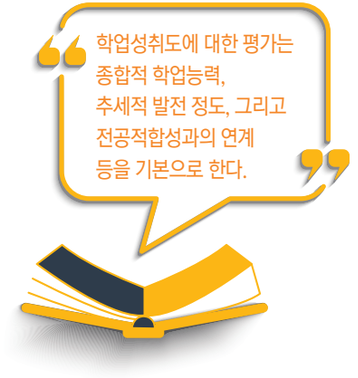
학업역량 평가항목의 변경

01.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학업성취도가 지원자의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나, 정성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등급과 원점수 뿐만 아니라 이수과목, 이수자 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 학업능력, 추세적 발전 정도, 그리고 전공적합성과의 연계 등을 기본으로 한다. 종합적 학업성취도는 3년간의 종합적 학업성취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재학 기간 중의 평균적 학업성취도에 의해 평가된다. 다만, 교과성적은 지원자가 속한 집단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에 의해 선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자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데는 종합적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평가의 관점은 발전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평가자들은 지원자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에 관심이 많다. 이런 점에서 성적의 향상 정도는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성평가에서 3년간의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하나의 평균 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평가자들은 다양한 과목 구분에 따라 학기별로 분석된 자료를 참고로 지원자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따라서 평가 시에는 전 과목이나 주요 과목을 통해 전체적인 학업능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전공하길 희망하는 분야의 과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병행한다.

학업성취도의 정의와 세부 평가지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었던 점은 학업성취도가 정량적 평가 위주로 흐르는 것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에서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정량적 지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학업성취도를 Z-점수나 등급 등과 같은 정량지표 위주로 정의할 경우 고교 현장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성적 위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Z-점수와 같이 상대적으로 정밀한 수단들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그런 점에서 전공 관련 심화과목이나 전문교과의 반영 여부 등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02.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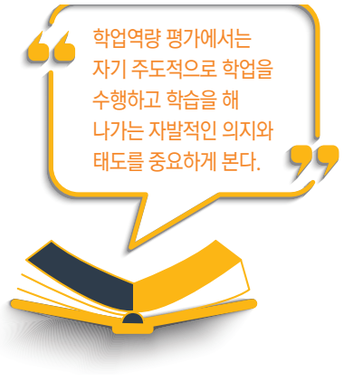
연구진에서는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를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 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학업역량 평가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 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를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학업 태도 및 학업 의지를 살펴볼 때는 자기 주도성에 기반한 학업에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 도전 정신과 실험 정신, 지적인 호기심, 각종 교내 활동에 대한 열정 등이 표출되었을 때 의미있는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먼저 교과 수업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하여 이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내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의 참여도와 노력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보여준 경우, 동아리활동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보이는 진취성과 무엇인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배우려는 자세,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지적인 관심사와 호기심 등에서 평가자는 자기 주도적 학업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자신이 처한 교육환경 속에서 스스로 배움을 확장시켜 나가고 토론이나 실험, 과제수행, 집단학습 등을 통해서도 창의성이나 자기주도성 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수업과 과제 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주도적인 노력, 열의와 관심, 성취 수준, 다양한 탐구 방법의 모색 등 의미 있는 지적 성취에 대해 주목한다.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이다. 교과 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분야의 서적을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그 내용이 토대가 되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지적 호기심을 읽을 수 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는 학업태도 및 의지 등 지적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요소들과 연관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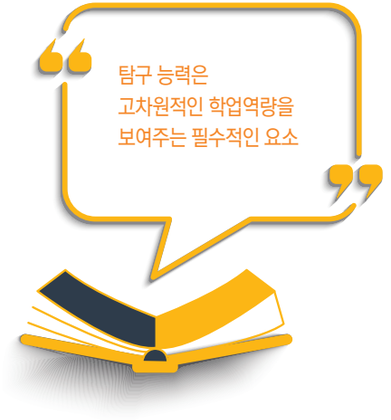
학업 역량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자기주도성은 지적호기심을 발휘해 보았는지, 본인 스스로가 어떤 하나에 심취해 보았는지 등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기주도성은 탐구력, 지적 호기심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지적 호기심과 관련된 요소들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도 잘 드러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과 관련된 지적 성장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평가자는 학교 수업과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이 보여준 학업 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 학업에 대한 열의와 관심, 성취 수준,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 등에 주목하여 지적 호기심을 평가한다. 수업의 다양한 모습과 과제 수행 과정, 즉 토론과 탐구·연구 활동, 글쓰기, 실험 실습 등을 통해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성취 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까지도 추론할 수 있다.

03. 탐구활동

연구진에서는 **탐구활동의 개념**을 '어떤 대상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학업 관련 탐구 활동을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한다. 탐구 능력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지칭한다. 학업능력은 교과학습 뿐만 아니라 관심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활동, 글쓰기, 탐구 및 연구 활동, 실험 실습, 교내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탐구 능력은 고차원적인 학업역량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탐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탐구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는가를 알아본다.

먼저 교실수업을 통한 성장과정에 주목한다. 교과 시간에 수업 내용에 대해 연계적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는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수업을 수강하였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수업에서 가진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거나 자신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확장해 나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교과 영역에 대한 탐구력 평가는 특정 지식을 잘 사용할 줄 아는지와 탐구력을 신장한 과정도 평가하는데 수행평가는 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수행평가는 학생 스스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적용 또는 활용하는 능력까지 평가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탐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탐구 역량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주제 탐구,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한 자율활동을 통해 꾸준한 탐구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술을 주제로 하는 동아리 활동에는 교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토론, 실험, 연구, 탐구 활동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탐구 역량이 드러날 수도 있다. 탐구능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험 실습이나 탐구, 연구 활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문적 열정이나 지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된 '학업역량'의 평가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평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_ 학업역량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1) 학업성취도

정 의

- 교과목의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 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노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적 발전의 정도

평가 세부 내용

- 전체적인 교과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은 상승/하락하고 있는가?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그 외 과목 성적은 전반적으로 무난한가?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다른 과목의 성적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 과목별 이수자 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과목별 등급 외에 원점수(평균/표준편차 포함)는 적절한가?

2)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정 의

-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평가 세부 내용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 자발적인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을 보이는가?

3) 탐구활동

정 의

-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평가 세부 내용

-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
- 탐구 활동에서 표출되는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전공 적합성 2



'전공적합성'이 대입 평가요소로서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2007년 입학사정관제 도입부터라고 하겠다. 입학사정관제는 현재 드러나지 않지만 장래에 발현될 능력인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학과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인재상을 구체화하고 평가요소와 기준을 마련하였다. 고교에서 대학의 지원학과와 관련한 관심과 노력, 전공 관련 적합한 활동, 비교과활동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졸업 시까지 24단위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진로활동이 더 강조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1년 3월에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대교협도 「입학사정관제 운영공통기준」(2010. 4. 16.)을 마련하여 입학사정관전형의 평가기준으로 "전공적합성, 학업성취도 및 학업의지, 인성, 창의성,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 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이 공동연구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공통기준과 용어표준화 연구」에 제시된 공통평가기준안을 보면 인성이 주요 4대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있다(박찬규 외 17인, 2016).

전공적합성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간 인식 차이가 크다. 다수의 대학들은 전공적합성을 학업, 인성 등과 독립된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들은 학업역량이나 발전가능성 내의 세부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평가요소에서 아예 제외하기도 한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의 전공과정이 다르고, 전공적합성을 반영하면 고교가 비교과활동을 강조해 교과수업을 위축시키고 고교 교육과정이 대학 입시 맞춤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전공적합성을 평가요소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자는 배제설이 있다.

또한 전공적합성이 전공에 맞는 활동이 있고 대학과정의 심화된 전문성과 지식을 쌓거나 진로가 일관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최근 통섭·창의융합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대학 전공도 광역단위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전공의 개념을 보다 계열로 넓히자는 확장설도 있다. 계열적합성으로 표현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용어는 전공적합성으로 그대로 사용하되 개념이 넓게 해석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교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실익이 있다는 실익설 등 다양하다.

연구진에서는 전공적합성을 다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전공적합성이란 용어가 이미 사회성을 가지고 고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지금 바꾸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의에서 '전공'으로만 표기하지 않고 '전공(계열)'으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전공적합성의 평가항목을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정·의를 활용하여 정의하였다. '知(intellect)로서 지성(지식)', '情(feeling)으로서 감정(느낌)', '意(will)로서 의지(행동)'를 말한다. 지성은 사물을 개념에 의하여 사고'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정하는 오성적(悟性的)인 능력을 말하고,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하며, 의지는 단순한 자연적 요구에 입각한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의도에 입각하여 자기결정을 하는 목적 추구행동을 일으키는 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심적 체계인 지·정·의 개념에 대입하여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정도'의 전공적합성 세부항목으로 , 지성(지식)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감정(느낌)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의지(행동)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으로 채택하였다.

전공적합성은 고교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학업 수준과 능력을 말하는 현재의 학업역량과 달리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의미하는 미래의 잠재력에 초점을 둔다고 하겠다. 물론 이런 지·정·의 세 가지 평가항목이 개별의 활동 단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 가지 활동 내에서 세 가지가 연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세 가지 평가항목 간 엄밀하고 명확한 경계가 있기보다는 평가자가 보다 세밀한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구분하였다.

채택된 세부 평가항목은 2016년의 6개 대학 평가표준안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실제 개별대학들의 전공적합성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새롭게 제안한 항목이며, 참고로 2016년의 연구와 비교하여 변화된 점은 다음 그림과 같다.

> **'전공적합성'은**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의미하는 미래의 잠재력에 초점을 둔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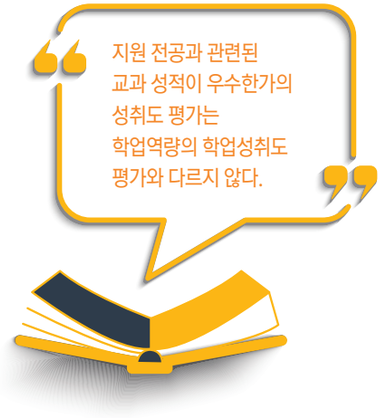
전공적합성 평가항목의 변경

01 .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공대 지원자 중 고등학교에서 물리Ⅱ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 만약 고등학교의 사정으로 물리Ⅱ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대학 전공 관련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평가를 다르게 할 것인가? 단지 전공 관련 과목을 더 많이 이수했다고 해서 더 우수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등이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평가 활용에서 대학의 고민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학생의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을 강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 대학에서 수학할 전공에 따라 교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제도다.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을 보장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고교학점제 도입은 대입전형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대학의 해당 전공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기초수학역량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조합을 통해 학생의 다양성을 살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전국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입학전형연구센터가 진행한 설문조사(2018. 1. 31.) 결과를 보면, '학생이 이수한 선택과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이 91.0%(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 이수한 선택과목을 대학입학전형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96%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이 이수한 선택과목을 학생부종합전형에 서류평가에 반영한다면 어떠한 평가요소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공적합성이 42.6%(117명)로 가장 많았고 학업역량이 31.4%(87명), 발전가능성이 24.2%(6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에 따라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이 활성화되면 '전공 관련 과목 이수 및 성취도'가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학생이 선택한 과학Ⅱ과목, 국제경제, 생명과학실험, 경제수학 등을 세밀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소인수과목, 공동교육과정, 온라인교육과정 등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을 기존의 학생부 교과 산출 공식을 반영하는 정량평가보다는 학생이 이수한 교과수준의 난이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교과과목의 이수여부 뿐만 아니라 과목의 수준과 질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대학은 학생의 이수 교과목의 수준, 이수과목의 경향성, 다양한 교과교육의 경험 등을 학생을 선발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고교 교육활동 전반을 살필 수 있다. 학생부를 읽는 전문가로서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한 전공 관련 교과목을 통해 전공적합성, 학업역량 등의 질적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학교의 여건이나 사정으로 지원 전공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않도록 하는 과제가 대학에게 주어질 것이다. 대학은 각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고교프로파일을 축적해야 하고, 고교와 대학 간에 고

> 예컨대 학생이 선택한 과학II 과목, 국제경제, 생명과학실험, 경제수학 등을 세밀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소인수과목, 공동교육과정, 온라인교육과정 등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을 기존의 학생부 교과 산출 공식을 반영하는 정량 평가보다는 학생이 이수한 교과수준의 난이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성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



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상호 공개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에선 다양한 선택과목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난이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교프로파일에 기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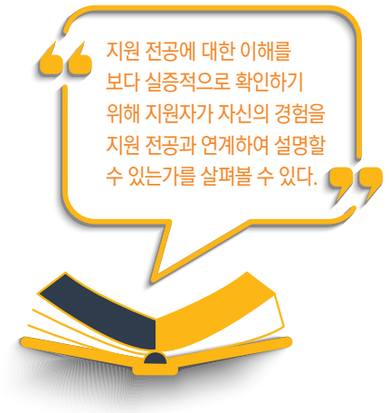
대학은 대학의 전공단위별(계열별) 요구되는 주요한 이수교과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고교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개인마다 다른 학생의 흥미와 관심,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를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하게 될 것이다. 대학은 학생부를 공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학생마다 다르게 학생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의 성취도 평가는 학업역량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다르지 않다. 지원 전공 관련 교과에 한해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진다. 보다 정확히는 입학사정관이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읽을 때 전 교과성적을 통해 학업역량을 판단하겠지만, 지원 전공 관련 교과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을 통해 전공적합성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평가 과정이 두 번에 걸쳐 나눠진다기보다는 동시에 이뤄진다고 하겠다.

02.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적합성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전공적합성은 논어 (論語) 옹야 편에 공자가 말한 지(知)·호(好)·락 (樂) 중에서 호(好)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공자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고 하였다. 전공적합성은 어떤 분야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으로 시작된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더 만족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우리 교육의 문제로 '대학입시 위주여서 여전히 주입식교육이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급하게 진로를 결정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미래에는 어떤 분야를 전공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점점 더 예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예컨대 경영학과 지원자라면 'CEO', '사회적 기업 CEO', '마케터',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에이전트', '예술경영자', '문화콘텐츠기획자', '경영컨설턴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제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외환딜러', '자산관리사' 이상의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지원 전공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전공적합성은 전공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생보다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이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 잠재력에 맞춘 평가라고 하겠다. 물론 그 꿈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원 전공 관련 직업군을 좁게 해석하지 않고 그 꿈은 바뀔 수 있지만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자기주도적 성찰과정의 태도를 중요하게 살핀다. 지원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전공적합성에서 평가되지는 않아도 발전가능성의 세부항목으로써 경험의 다양성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사항(직업명, 희망사



유), 동아리활동(정규, 자율동아리), 진로활동(진로탐색활동), 독서활동(책제목) 등의 비교과활동, 교과수업활동(발표, 토론, 주제탐구)과 교과연계활동(방과 후 학습, 동아리, 주말학습, 온라인, 소인수과목 등),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거의 모든 전형자료에서 지원자의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을 살필 수 있다.

지원 전공에 대해 관심은 자연스럽게 탐색 과정을 통해 해당 전공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그러나 실제 지원 전공에 관심이 있다고 전공에 대해 모두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전공에 대한 몰이해는 제대로 된 탐색을 하지 않았거나 주도적인 참여가 아니라 수동적, 피상적인 활동에 그칠 경우 나타날 수 있다. 대학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전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전공적합성 판단의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대학이 서류평가나 면접평가에서 학과 지원동기를 중요하게 살피는 이유이다. 자신이 입학할 대학의 지원 전공에 대한 심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해당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대한다.

해당 학과에 입학하여 졸업 후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를 위해 이 학과를 선택했다거나, 해당 전공을 수학하더라도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지원했다거나, 해당 전공에서 가르치지 않는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 지원했다거나, 해당 대학에 지원자의 진로 희망과 일치하는 다른 전공이 있음에도 이 학과를 지원했다고 한다든지 등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다.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와 동기의 구체성은 입학 후 해당 전공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는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 중도이탈률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원자가 자신의 경험을 지원 전공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진로활동의 몰입도, 성숙도 등과 관련되어 있다. 지원 전공 관련 활동을 수행하였지만 자기소개서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상적으로만 접근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활동 과정에서 배운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학생이 있다. 특히 지원 전공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활동처럼 보이지만 이 활동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이 과정이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전공에 맞는 활동을 특정한 몇 가지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지원자가 수행한 활동이 지원 전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지는 중요하게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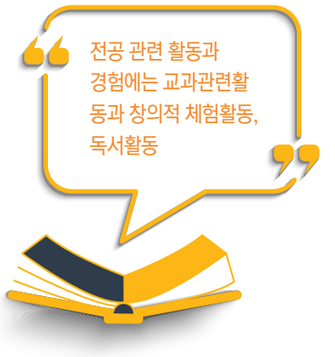
03.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은 활동과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학교생활 중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에는 교과 관련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 관련 활동으로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실적 등이 있을 수 있다. 최근 고교 수업에 학생참여형 수업활동이 증가하면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에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관련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방과 후 학습, 개방형 교육과정 등의 활동도 포함된다. 이전에 교과는 점수, 성적으로만 인식되다가 최근 교과에도 다양한 활동, 즉 발표, 토론, 주제탐구, 과제연구, 실험 등

학생참여형 교과활동(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이 수행평가 등과 연계하여 수업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냄으로써 교과 외 활동을 통해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학생의 준비 부담이 줄고 방과 후가 아닌 정규 수업에서 관찰한다는 의미에서 교사의 기록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교과 수업활동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기록물로서 학업성취 수준,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등 학생의 다양한 측면을 살필 수 있다. 학생의 과목별 특기와 역량, 호기심, 수업 참여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수상, 진로, 독서 등과 연계적으로 학생부의 다른 활동 기록을 이해하는 해설서나 지침서 역할을 해 주기도 한다. 학생참여형 수업활동에서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교과수업 활동에 대한 서술형 기록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관심과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다. 호텔리어를 희망한 학생이 영어 수업시간에 '호텔리어가 왜 되고 싶고, 호텔산업의 전망 등'에 영어로 발표하면서 본인의 진로희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향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으로 학생참여형 수업이 활성화되면 교과활동 과정에서 전공적합성을 판단할 요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 관련 활동으로 교과 수상실적이 있다. 예컨대 글쓰기대회나 토론경시대회 수상실적은 인문/사회계열의 전공적합성, 각종 과학경시대회는 자연계열의 전공적합성, 문화예술·체능 경시대회는 예·체능계열의 전공적합성을 살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수상실적란은 교과경시대회의 대회명, 등위, 참가자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정 부분 정량적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 전공에 관련한 대회 성격의 모호성, 학교 간의 경시대회와 수상 개수 차이, 우수상을 한 개 받은 학생과 장려상을 여러 개 받은 학생에 대한 평가 등 수상내역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 단순한 수상실적 개수와 등위보다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상의 의미와 가치를 평가한다.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 하겠다. 학생들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가지 영역에 정규 24단위 이상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생활 중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동아리나 팀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대학은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확장된 경험을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지, 학생들은 정규 교육시수 24단위 외에도 자율동아리, 방과 후나 주말, 자율활동 등을 통해 지원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중 학교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일부는 자기소개서에 기록되어 대학이 평가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사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자기주도적 체험활동을 안내하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진로 희망에 적합한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진로체험활동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학의 전공적합성 평가에 맞는 활동을 위해 고교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에 참여하며 교사는 이를 학생부에 기록해준다. 대학은 이러한 학생의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이 기록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전공적합성을 평가한다.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으로 독서활동을 들 수 있다. 독서는 간접 경험으로 지원 전공 관련하여 시·공간적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최근 학교 주도로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어 독서활동상황의 기록도 늘어나고 있다. 학생참여형 교과수업과 연계한 독서, 0교시에 책 읽는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독서, 학생 스스로 개설한 독서토론 자율동아리까지 다양하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독서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독서와 대학 공부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쌓고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독서하면서 세상의 사물과 이치를 자기 거울로 비춰보게 된다.

이렇게 진짜 독서하는 학생이 대학 공부에 적합한 지적 호기심과 탐구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는 판단에서다.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의 독서 이력을 통해 책을 읽게 된 계기, 관심 분야, 학과 지원동기, 학생에게 준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책 제목과 저자명만 기록하더라도 학생부의 다른 영역이나 자기소개서와 연계하면 관심 분야의 깊이나 다방면의 교양을 살필 수 있다. 독서활동상황이 빈칸으로 비워 있는 학생을 좋게 볼 입학사정관은 없다. 책 읽는 습관이 잘 되어 있는 학생은 대학 공부 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다. 대학은 제대로 된 독서와 피상적인 독서를 구별하고자 한다. 대체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이 뛰어나다. 제대로 된 독서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실적'에 글쓰기 관련 상을 많이 받거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많이 읽은 도서 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의 성적이나 수업 태도가 좋다. 자기소개서도 남다르다. 자기소개서 내용의 표현력과 깊은 자기 성찰이 돋보인다. 면접 때 말솜씨도 다르다.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줄 안다. 읽은 책 몇 권을 질문해보면 피상적으로 읽은 독서는 금방 드러나게 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몇 권이라도 제대로 책을 읽고 있는지 확인한다. 입학사정관은 다독보다 정독, 몇 권이라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를 성찰하는 의미 있는 독서를 한 학생을 좋게 평가한다. 독서를 하다보면 자신의 관심분야가 확장되어 다른 몇 권의 책을 읽게 되는데 소위 꼬리물기 독서를 하게 된다. 지원 전공 지식을 심화시키는 독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 읽는 독서가 바람직하다. 물론 지원 전공에 대한 심화된 지식, 관련 분야 독서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배울 전공서적인 경영학원론을 찾아 읽을 필요는 없다. 다만, 고등학생 수준에서 읽을 책인지에 대한 독서 수준에 대한 평가는 이뤄진다. 너무 쉬운 책만 찾아 읽거나 초·중학교에서 읽어야 할 정도의 책만 찾아 읽는다면 좋은 독서로 보기 어렵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정리된 평가요소'전공적합성'과 개별 평가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세부평가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_ 전공적합성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정도

1)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정 의	•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
평가 세부 내용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해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이수단위, 수강자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참고)

2)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 의	•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평가 세부 내용	•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지원 전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3)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정 의	•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평가 세부 내용	•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관련활동(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 등)이 있는가? • 지원 전공에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이 있는가? • 지원 전공에 관련된 독서가 있는가, 적절한 수준인가?

인성 3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이를 강화하는 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중·고교 인성교육의 정착과 활성화는 아직 미진함이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 초·중등 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실종은 교과지식의 점수 평가(인지능력)에만 기대는 지금까지의 대입제도가 교실에서의 과도한 점수경쟁을 유발하고, 인간관계나 인성교육은 홀대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수시전형에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서서히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 대입전형에서의 인성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비인지적 요소 평가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예로 2016년에 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이 공동연구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공통기준과 용어 표준화 연구」에 제시된 공통평가기준안을 보면 인성이 주요 4대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있다(박찬규 외 17인, 2016).

이 연구에 의하면 6개 대학은 공통적으로 학업역량·전공적합성·인성·발전가능성을 핵심평가요소로 설정하고 있으며, 인성이라는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으로 '나눔과 배려의 실천, 팀워크와 협력, 리더십, 도덕성과 품성, 성실성,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내세우고 있다.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대학이 요구하는 인성덕목은 개인적 성품에 해당하는 도덕성과 품성, 성실성 등과 더불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인성 역량으로 인식되는 나눔과 배려, 팀워크와 협력,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등 타인과의 관계능력과 나아가 자신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등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인성평가 도입은 인재선발의 기준을 '알고 있는 지식의 양'보다는 실행할 수 있는 실제능력으로서의 '역량중심'평가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개인의 성공은 지능이나 학업성취도 같은 인지적 역량보다 끈기, 성실성, 호기심, 인간관계, 자신감, 자기조절 등과 같은 비인지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최근의 HR연구에 힘입어 인재선발평가에 비인지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대학의 인성평가는 전 세계 미래인재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OECD가 2014년에 제안한 6개 핵심역량 '협력과 조정, 관리역량, 융합통합역량, 필요정보선별 및 분석역량, 유연성, 대인관계역량, 글로벌 역량'이나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길러내고자 하는 6개 핵심역량 '공동체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의사소통역량, 자기관리역량'을 학생 선발의 평가요소로 활용함으로써 대학이 초·중등교육을 지식습득위주가 아니라 역량중심교육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도에서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 사회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이웃과 동료들이 함께 동반성장하도록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되는 사회이다. 이를 위해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그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이 적극적으로 입학선발에서 '인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우리는 흔히 이와 유사한 의미로 인품, 성품, 기질, 성격, 인간성, 사람 됨됨이, 인간의 본성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2015년 7월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이란'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개인적 차원) 및'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타인·공동체·자연과의 관계차원)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인성'이 대입선발을 위한 평가요소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와 경험 등으로 나타나야 평가의 근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평가적 관점에서의 정의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보았듯 향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요건이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바람직한 일원이 되기 위한 인성의 함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내려진 개념정의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의 세부항목으로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을 제시하였다. 채택된 세부항목은 2016년의 6개 대학 평가표준안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실제 개별대학들의 인성평가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새롭게 제안한 세부항목이며, 참고로 2016년의 연구와 비교하여 변화된 점은 다음 그림과 같다.

> "대학의 **인성평가 도입은** 인재선발의 기준을 '알고 있는 지식의 양'보다는 실행할 수 있는 실제능력으로서의 '역량중심'평가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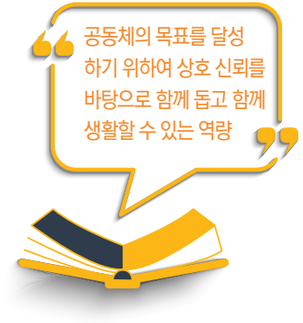


인성 평가항목의 변경

01. 협업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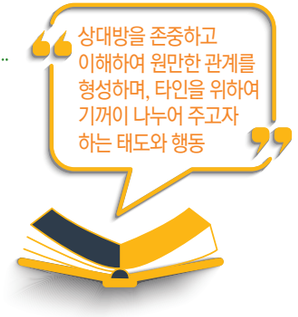
협업능력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된다.

협업능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6대 핵심역량-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 중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기본적인 인성으로써, 현실적으로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동학습과 단체활동 등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정의에서는 협업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이끌어내는 동기로써 '공동체의 목표'를 인식하는 부분과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의 '상호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정의에 포함하였다. 평가 세부내용은 자발적인 협업의 빈도, 협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능력, 동료로부터의 신뢰나 인정, 바람직한 협업을 통한 성과와 보상경험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실제 대학의 인성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에 나타나는 다양한 단체 활동 속에서 지원자가 보여주는 태도나 행동 등이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는지, 동료 혹은 교사의 평가는 어떠한지 등이 평가될 수 있으며,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지원자가 보여준 행동 등이 평가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공동체 내의 협력적 활동이 자발적으로 지속되거나 빈도가 높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02. 나눔과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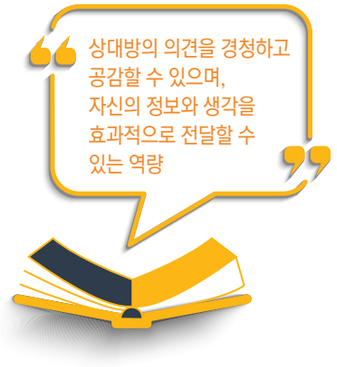
성숙한 미래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이웃과 동료들이 함께 동반 성장하도록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재가 길러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나눔과 배려'**라는 평가항목은 타인을 존중하고 차이를 포용하며, 상대를 위한 나눔이 생활화된 인성을 갖춘 인재를 평가하고자 설정되었다. 따라서 나눔과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된다. 평가 세부내용에는 나눔의 생활화, 봉사활동의 지속성, 상대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존중, 타인배려의 경험 등이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실제 학교생활에서 나눔의 생활화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경험은 '봉사활동'을 들 수 있는데, 봉사시간의 양보다는 자발성과 지속성 등이 중요한 평가점이 된다. 또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 내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학습 멘토활동이나 어려운 처지의 동료들을 돕는 활동, 교내 행사나 청소 등에서 보여주는 봉사 등이 평가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에 언급되는 나눔활동의 빈도가 다수이고 활동이 일관되어 이러한 나눔이 체화되어 나타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근거가 생긴다. 또한 나눔이나 봉사에서 일방적인 베품보다는 상대의 처지나 어려움을 헤아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나타날 때 더욱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 예를 들면 토론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견의 대립 등 –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나 경험, 혹은 약간의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기꺼이 상대를 배려하고 나누고자 하는 사례 등의 기록이 있다면 좋은 평가 근거가 될 수 있다.

03. 소통능력

'소통능력'이라는 평가항목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토대로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제대로 소통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인성을 평가하고자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소통능력이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미래사회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이 공동체성을 증진할 수 있는 소통역량이라는 점은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대입전형의 인성평가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서류평가 혹은 면접평가에서 이 평가항목을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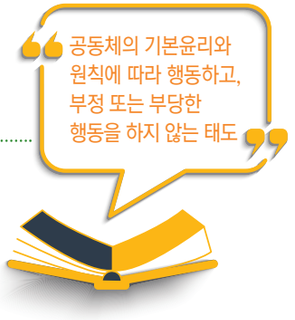
세부 평가내용에는 학교생활 중 소통이 필요한 공동체 활동에서 타인의 의견을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글이나 언어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 등에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도 함께 포함되었다.



평가 세부내용에서는 많은 적절한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교사들은 이 평가항목이 학교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모둠활동이나 단체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기대하고 이러한 내용이 평가세부내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수업이나 기타 다양한 교내활동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의사표현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토론과 발표를 장려하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소통능력'이 '의사소통'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타인에 대한 공감'과 '새로운 지식이나 의견에 대한 개방적 수용'과 관련한 내용도 세부평가내용에 포함되므로 소통능력이 의사소통능력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04. 도덕성



인성평가의 평가항목으로 **'도덕성'**을 설정한 대학은 연구에 참여한 6개 대학 중 한 대학뿐이었으며, 조사에 의하면 학생부종합전형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 도덕성을 인성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이 공동체의 기본윤리의식의 함양 정도를 표현하며 이는 건전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 항목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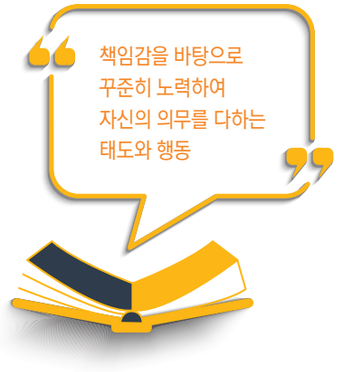
실제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에서도 학생들이 공동체의 기본윤리는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는 항목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변별보다는 결격사유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정의에서는 공동체의 기본윤리를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부정하거나 부당한 행동 금지에 대

한 명확한 내용을 정의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덕성은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세부평가내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서 이러한 준수만으로는 평가가 쉽지 않으므로, 오히려 규칙을 준수했을 때 자신에게 손해가 생기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행동이나 경험이 나타나는지, 수동적인 규칙의 준수에서 나아가 행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사나 동료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는지 등을 변별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 규칙이나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이를 평가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교육적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평가내용도 설정하였다. 물론 이 평가항목은 기본적인 학교의 교칙이나 규정 등을 어긴 구체적 사례가 기재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학교폭력의 가해자 등–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05. 성실성

'성실성'은 개인적 인성덕목의 기본으로, 인성평가항목을 조사한 타 대학들 사례에서도 평가항목으로 다수 채택하고 있었다. '성실성'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성실성이 책임감과 정직·신뢰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덕목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성실성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실제 세부평가내용은 학교생활에서의 교과 및 비교과에서의 꾸준한 노력과 힘든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는 태도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의 성실성의 기본인 '출결상황'도 성실성의 세부 평가내용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정의와 세부평가내용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학생의 성실성은 결국 학교생활에 충실히 참여하는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를 정의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연구진은 학교생활 충실성은 학생의 성실성의 결과이지 성실성의 정의에 포함하기는 어려우며, 학교생활 충실성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전반적인 평가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인성항목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세부 평가내용에 학교생활에 충실한 사례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학교생활의 주요장면에서의 충실성 즉 교과수업 및 교과 관련활동을 포함한 학업수행과정에서의 성실성, 창의적체험활동, 출결상황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에서의 성실한 노력을 평가내용에 담았다. 또한 성실성의 가장 핵심적인 변별은 성실성을 지속하기 힘든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하는가에 따라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평가 세부내용에 포함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된 '인성'의 평가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평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_ 인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1) 협업능력

정 의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평가 세부 내용	•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자주 나타나는가? •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공동과제나 단체 활동을 즐겨하고,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가?

2) 나눔과 배려

정 의	•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평가 세부 내용	•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한 구체적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나눔을 생활화 하고자 하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 •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학교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한 본보기로 언급되거나 모범이 된 사례가 있는가?

3) 소통능력

정 의	•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평가 세부 내용	• 공동과제 수행이나 모둠활동, 단체활동 등에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관심사항과 요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 수업이나 교과 외 활동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논리적·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경험이 나타나는가? •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4) 도덕성

정 의	• 공동체의 기본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평가 세부 내용	•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가? • 규칙이나 규정을 어긴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가?

5) 성실성

정 의	•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
평가 세부 내용	• 학업활동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 자신의 관심분야나 진로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이 있는가? • 출결상황이나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는가?

발전 가능성 4



발전가능성 평가요소는 각 대학에서 성장잠재력, 잠재역량, 잠재적 발전가능성 등의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평가요소로써 대교협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중 '창의성'과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영역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발전가능성은 사전적 정의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으로 최종적으로 정의하였다.

2016년 공동 연구의 발전가능성의 하위 평가항목 중 도전정신은 자기주도성으로 포함하고 창의성과 문제해결/환경극복능력을 창의적 문제해결 항목으로 통합하였고, 문화적 소양은 경험의 다양성으로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리더십 항목을 새로이 발전가능성의 하위 평가요소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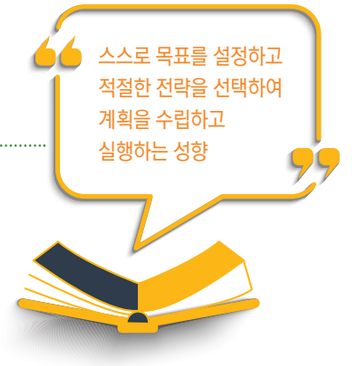
발전가능성의 세부 평가항목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행동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 평가요소의 정의는 4가지 세부 평가항목을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다. 개인행동의 성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는 학업과 학업 외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학교생활 전반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성향과 태도이다. 고등학교의 다양한 경험, 학습 패턴, 행동 성향에 대한 관찰을 통해 대학 입학 후에도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행동 패턴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더욱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평가영역이다.

> "개인행동의 성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넓은 개념"



발전가능성 평가항목의 변경

01.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평가의 세부 영역은 1) 교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 2) 새로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었는지, 3)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지로 구분하였다.

자기주도성은 통상적으로 교과활동보다는 비교과활동에서 관찰하고 평가하는 영역으로 구분되지만, 교과 활동과 비교과활동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다. 각종 활동 영역에서 새로운 과제를 만들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일정한 성과를 창출하는지, 추가적으로는 성과 창출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지를 살펴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교과 영역에서는 수상경력을 통해 교과 지식의 활용과 학업의지의 자기주도성을 살펴볼 수 있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독서활동 기록을 통해 교과 학습을 넘어서는 자기주도적 독서활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통해서 이를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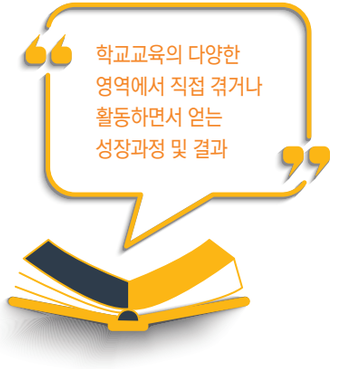
교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동아리 뿐만 아니라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통해서 자기주도성을 찾아볼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의 예를 든다면, 기존 활동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와 역할을 수행하며, 특정한 결과물이나 성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제시할 수 있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02. 경험의 다양성

경험의 다양성 항목은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는 성장과정 및 결과'로 정의하였다. 경험의 습득 과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교육 내 경험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경험의 다양성은 교과 습득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 학교 내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사회 영역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춘 학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설정한 평가항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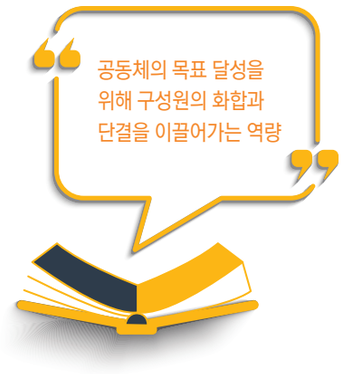
경험의 다양성 평가 세부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지 살펴본다. 중요한 것은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활동 경험을 통해 시각이 넓어졌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독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지를 살펴본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 외에도 인문, 과학, 사회, 역사 등 폭넓은 독서 경험이 학생들의 시각을 넓히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세 번째, 예체능 영역에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예체능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 신체적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학교 밖 특별활동은 제외하며 예체능에 대한 특별한 재능보다는 학교내 예체능 활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참여를 평가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다. 단순히 폭넓은 경험보다는 이를 통해 성취한 경험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한다.

03. 리더십

리더십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리더십은 학문적 정의가 다양하지만 고교현장에서 사용되는 평가요소인 점을 고려하여 특정 직책을 맡은 경험 여부보다는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는 활동 경험을 한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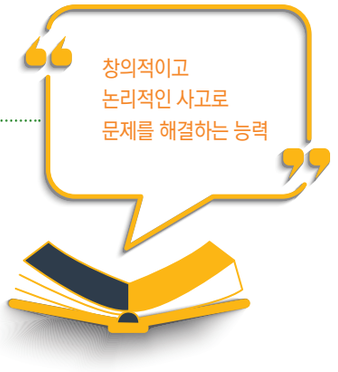


하위 평가항목은 첫째, 학생회, 동아리 등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범한 공동체의 일원으로도 역할을 부여받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한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수업 상황, 모둠별 학습 상황, 동아리, 봉사 등 일상적인 교실 상황에서 공동체 일원에 대한 배려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서번트 리더십에 가까운 개념이다.

셋째, 공동체 목표를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에 대한 평가항목이다. 개인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공동체 목표를 위해 공동체 일원을 움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04.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합친 개념으로 한 측면에서는 교과 활동 과정에 드러나는 창의적인 발상을 평가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교내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교육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에 대해서 평가한다.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의 전환, 수행평가를 비롯한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개진이 일상화된 학교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문제해결력은 학습 상황보다는 다양한 단체 활동 경험 상황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를테면, 학교의 프로그램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학생보다는 학교 상황이 열악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일정한 성취를 이룬 학생을,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평범하지만 성실히 학교의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을 주어진 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된 '발전가능성'의 평가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평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_ 발전가능성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1) 자기주도성

정 의	•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성향
평가 세부 내용	• 교내 다양한 활동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가? • 새로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었는가? •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

2) 경험의 다양성

정 의	•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
평가 세부 내용	•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가? • 독서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가? • 예체능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였는가? •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취한 적이 있는가?

3) 리더십

정 의	•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역량
평가 세부 내용	•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주도 활동에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4) 창의적 문제해결력

정 의	•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평가 세부 내용	• 교내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 교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 주어진 교육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5 자기소개서 자율문항



2016년 건국대 외 6개 대학의 공동연구를 통해 자율문항을 공통문항으로 개발하여 2017학년도 전형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6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 규모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자율문항을 공통문항으로 개발하여 적용함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원자의 가정환경 등 개인정보가 나타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자율문항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 “지원자의 가정환경 등 개인정보가 나타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자율문항의 문구를 수정”

수정 문항

4.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1,500자 이내)

나가며...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의 표준화방안은 2016년 공동연구인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공통기준안과 용어의 표준화 연구'에 기반하여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을 평가요소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평가요소별 평가항목을 유목화하고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평가내용을 제시하였다.

학업역량은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을 폭넓게 수행하였으며, 대학 입학 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으로 규정하고, 교과성적과 같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학업에 대한 태도나 탐구활동이라는 정성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전공적합성은 고교와 대학 간 인식의 차이가 큰 평가요소이다. 전문가 의견과 FGI를 거쳐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적합성을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분류했지만, 대학들 중에는 전공적합성을 학업역량이나 발전가능성 내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공적합성의 평가항목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다. 학업역량과 같은 맥락으로 지원 전공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의 수준과 전공 관련 관심과 관련 경험이라는 과정을 중시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인성은 고교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개념규정에서 적용까지 쉽지 않은 평가요소이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인성이라는 평가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개인의 성공이 지능이나 학업성취도 같은 인지적 역량보다 끈기, 성실성, 호기심, 인간관계, 자신감, 자기조절 등과 같은 비인지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는 대입전형이 수치로 측정가능한 지식의 양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능력으로서의 실행할 수 있는 역량중심의 평가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인성이라는 평가요소 또한 전공적합성 못지않게 대학과 고교의 인식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와 세부평가내용에 고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인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으로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도덕성, 성실성, 소통능력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발전가능성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요소이지만 대학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다. 이는 학업과 학업 외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학교생활 전반을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교에서는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보다 쉽게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표준안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내용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안내이다.

이는 대학에서의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고교현장에서 진로지도와 진학상담에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정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건국대학교 외(2016)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공통기준과 용어표준화 연구보고서.

경기대학교 외(2016) 공통 서류평가 요소(기준) 개발 연구보고서.

경희대학교 (2016) 학생참여형 교과활동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형 분석 연구. 2016-경희대학교-04호.

교육부 (2004)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교육부.

김지영 (2014) 문답식으로 알아보는 성취평가제[고등학교 보통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IM 2014-9.

시기자 외(2012) 준거참조평가에 근거한 고교 내신 대입전형활용 사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12-17.

윤숙현 (2011) 창의적 문제해결 지원시스템 모형 및 프로토타입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인성희 (2013) 청소년의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진택 외(2016)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전공적합성의 의미와 대체 용어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입학전형연구 제5권, 37~75.

전주대학교 외(2016)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인성평가모델 및 평가도구 공동 개발 연구보고서.

정창우 (2015)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조난심 (2004)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개선 방향. 교육과정연구. 22(1).

차윤경, 이미경 (2016) 고교 현장에 기반한 인성교육 방법 및 평가 연구, 한양대.

홍순혜 외(2012)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지수 검사개발 및 타당화, 서울여자대학교.

홍후조 외(2004)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고교 내신과 그 활용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2004-16.

연구책임자
장교식 (건국대학교)

공동연구자
김경숙, 이정림 (건국대학교)
김　현, 임진택 (경희대학교)
홍정일, 이미경 (서울여자대학교)
김응빈, 박정선 (연세대학교)
백광진, 차정민 (중앙대학교)
나민구, 이석록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일
2018. 2. 28

발행처
건국대학교

문　의
02-450-4275 건국대학교 입학전형센터

• 제작 _ 디자인여름 (02-421-1452)